



## 육신으로 산다면 중생이고 마음으로 산다면 바로 부처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깊이 잘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생각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고등 동물이라고 해서 벌써 90%, 그거를 알면 90%라는 언어도 불지 않는 자리지만 벌써 부처라고 이롭게 낚는데 육신으로 산다면 중생이 사는 거고 마음으로 산다면은 바로 부처니라, 법신이나라 했습니다. 근본 마음으로 인해서, 또 시냇물도 자기발전소의 에너지를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바로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니어서 자유인으로서의 각(覺)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날처럼 낚싯배나 던지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앉아서는 도저히 우리가 생활 불교로서 이끌어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되기 이전에 부처 된다 안 된다, 또 앞으로 내가 부처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떠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어떤 사람은 법을 설할 때 법상을 놓고 한다는데 나는 앉은 데가 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법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휴에 앉아서도 법상이 될 수 있고, 법상에 앉아서도 그 법이 한데 떨어진다면 그것은 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지에 석존께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봐도 이끌어 주셨고 두 사람을 봐도 이끌어 주셨고 또는 피아뼎에 앉아서, 할 수가 없을 때는 피아뼎에 앉아서도 그대로 설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심중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 보십시오. 믿는 것은 오직 자기의 깊숙한 마음, 그 주인공뿐입니다. 깊숙이 주인공을 진실로 믿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니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바로 주인공, 내 주인공이 제일이지!' 모 든 그 마음이 공했을 때에 공생(共生)의 능력이 나에게 공심(共心)으로 돌아와서 공행(共行)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바로 그 액을 공식(共食)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약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는 액 자체, 그 에너지 자체의 약이 있습니다. 무의 세계에서 공식하는 거, 유의 세계에서 공식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무의 세계에서 물질을 보이지 않는 무체액, 그 자체가 바로 공해서 공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당신이 모든 거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하고 있으니까.' 할 때 그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컴퓨터처럼 벌써, '내가 아픈 데 공식하고 있다.' 고 생각하니까 벌써 그 약이 들어오 겠죠. 배가 고프다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쌀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무공무진한 것을, 유의 법 무의 법이 그렇게 무공무진한 것을... 그래서 무의 법으로서의 체가 없는 액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사흘을 굶어도 배고프다고 지지하게 쓰러지지 않

을 거예요. 또는 어떤 거라도 먹게끔 다 들어오 기 때문에 굶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굶어요? 주인이 심부름꾼을 시킬 때에 굶겨 가면서 심 부름 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멍뭍한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허허바다처럼, 청정한 그 바다처럼 엔간한 풍물이 들어가도, 엔간한 흙 물이 들어와도 뒤집힐 필요가 없고 끄떡없이 금방 가라앉고 조화가 되고 그러죠. 그런데 조 끄만 연못, 우물에는 들어가면 그냥 활랑 뒤 집히죠. 금방 가라앉았대도 또 뒤집히죠. 그러

니까 마음을 넓게 쓰시고 항상 주인공에서 나 온 거, 공에서 나온 거 공에다가 녹아 되겠다 하는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진실하게 깊숙하게 믿어 보세요, 싸울 것 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굶었다고 배고플 것 도 없고 내가 발버둥치지 않아도 바로 스스로 서가져온다 이겁니다.

질문자(여) ... 의정을 내는데요, 제가 선택 을 아직, 처음이 돼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할지, 또 의정을

내다가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는 또 판 거로 밀고 나가는데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보살님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 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되는 분들은 찬찬히 자 주 나오시면서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꿈도 꿈이고 현재 생시도 꿈입니다. 저 달이 말입니다. 강에 비쳤다가 이겁니다. 강에 비 쳤을 때에 그 강에 비친 달은 하늘에 있는 달과 둘이 아니면서 그림자예요. 내가 지금 몸뚱이 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가 마음 으로 요렇게 생겼고 내가 요렇게 있다 하는 걸 알고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 컴퓨터에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는 항상 그 모습으 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루 온종일 살다 가 들어왔는데도 한 시간도 안 됐더래요, 온종 일 살았는데, 꿈에서는 하루 온종일 살았습니 다. 그랬는데 저녁에 밥 얼른 달라고 그러는 바 람에 깨 보니까는 한 시간밖에 안 됐더라는 얘 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 모 습을 지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는 일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모습 없는 모습을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는 빠 르기가 여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서도 없으니까, 진실은, 그러니 이 육신 을 끌고 하루 종일 산 거하고 꿈에 한 시간간 산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남니까? 그래서 꿈을 꾸 다고 하는 것도 모두, 생시나 꿈이나 자기의 모 습이 다니는 거니까 자기에다 뇌라 이겁니다. 진짜 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물과 나고 잎과 가 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거기다가 그렇 게, 놓을 데 없는 데다가 놓을 게 없는 것을 뇌라 하는데 진실히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시에 만나면 일가친척 이고 누구고 간에, 애들의 친구든지 내 친구든 지 또는 어떤 회사든지, 상업을 하는 사람이든 지 천차만별로 살아나는데 거기서 만남이 있 지 않습니까? 그 만남은 사람마다 나하고 저 사 람하고 각각 보니까 상대가 생기죠? 그러니까 업보를 짓는 겁니다. 상대로 보니까, 우리가 여 여하게 살면서도 상대를 마음으로는 돌로 보지 않아야 그게 업보가 되지 않는데, 업보에 끌릴 리도 않을 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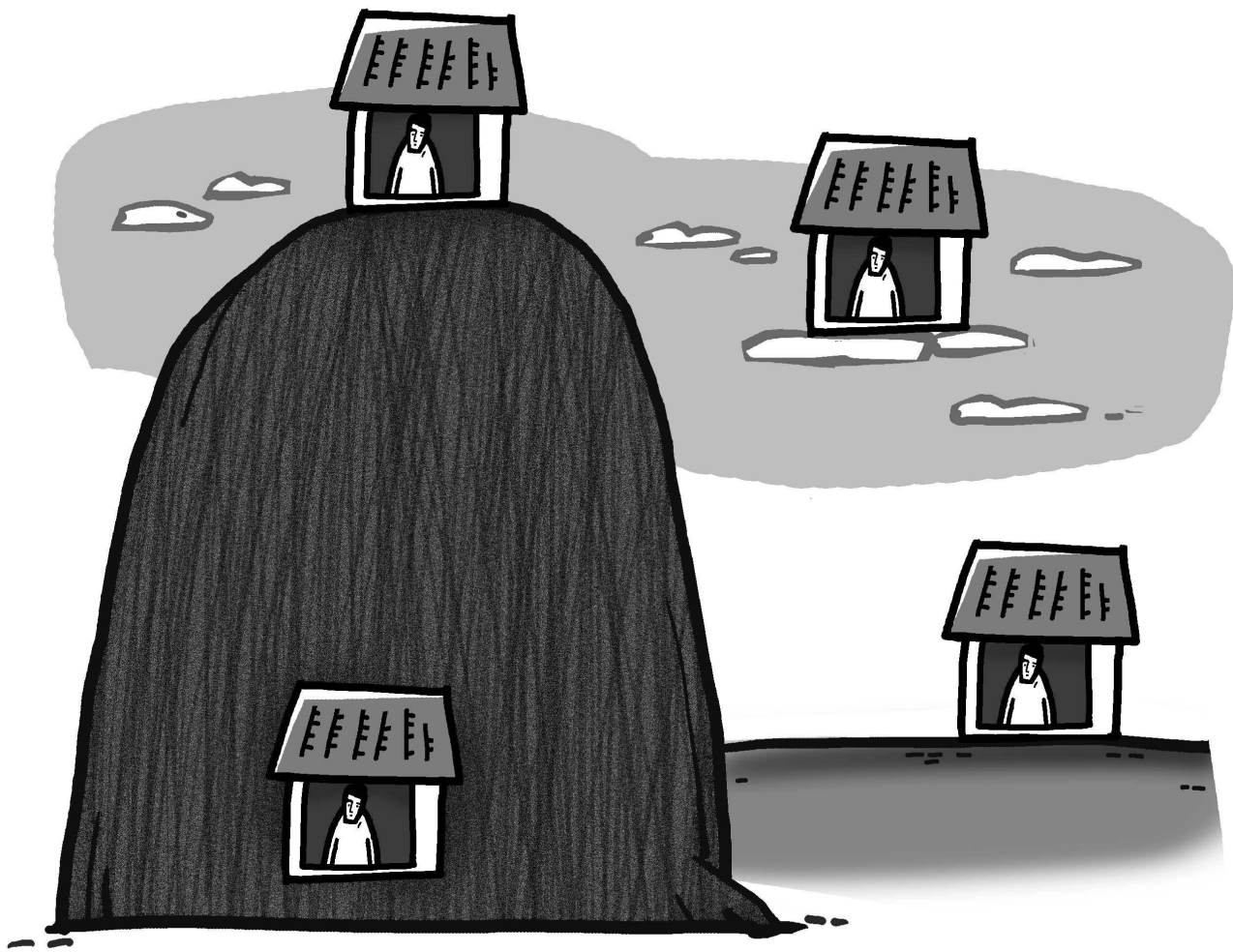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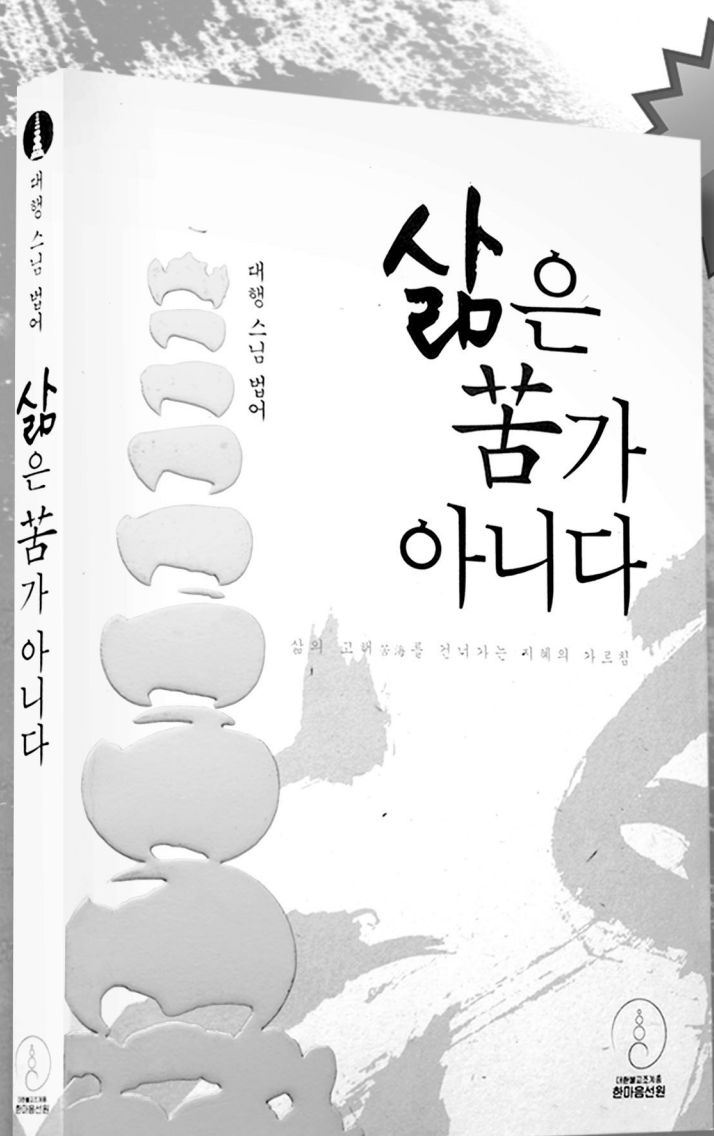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꿀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함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품절]
- ▶ 신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

10,000원 A5 / 287쪽

#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진짜로 진실하게 믿어 보세요

29면에서 계속

현실에 꼬달리지 않는다면 꿈에도 꼬달리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꿈이요 저것도 꿈이라면 꿈에 또 꼬달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진짜의 마음 그 자체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억겁을 거쳐 오면서 특별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자기기가 살던 그 습성이 모습과 함께 자기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짐승이 와서 나한테 덤벼들었다, 또는 뱀이 나한테 덤벼들었다, 꽃이 화장하게 핀 걸 봤다, 또 무슨 도둑이 들었다,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간 많지 않죠. 그리고 또 꿈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한 문제가 어딘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 하죠, 꿈 심어서 콩나수가 났으니깐 그 작년 꿈은 없어진 거죠, 아주 없는 거죠. 그런데 미생물이 있기 이전부터, 또 미생물이 생겨서 오기까지 그것이 수백 수천 년 수만 년 그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기까지 왔어도 안 사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억겁을 거쳐 나온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 살던 그 습이 남았던 얘깁니다. 짐승으로 다니던 습과 천차만별로 거쳐 온 습이 남았던 얘깁니다. 살아온 것이 자기 마음의 컴퓨터에 쥘여 있으니깐 그것이 때로는 습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자꾸 인과응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는 대로 그냥 주인공에 모두가 돌이키게 놓았을 때에는 다 녹아 버립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그 인과응보가 다 녹아 버리고 유전성이 다 녹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습성을 기르지 않았더라면, 기르려고 그래서 기르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날까지 오면서 습성을 놓고 왔더라면, 지금 현재에 놓고 가는 건데, 그대로 여여하게 놓고 가는 것을 홀연히 깨달았다면,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날까지 그 습을, 남은 것도 없고 앞으로 또 쥘여질 것도 없고 전지에 쥘여진 것도 없고 이랬을 텐데 아니, 마음으로 자아서 습에 의해서 그냥 착착 쥘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 만날 때 아버지 만날 때, 이런 일 할 때 저런 일 할 때 나투어서 돌아가듯이 그런 업보도 인연 따라서 올 때에, 그렇게 자꾸자꾸 나투면서 지은 것이 진화... 그래서 발이 없어. 발이 없으니 어떻게 되지? 아니, 내가 네 발로 걸어다니기보다 서서 다니는 게 편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진화력이거든. 그 생각에 의해서 진화되는 거지 몸뚱이로 다니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도 다 공지 떨어진 자리가 있다고, 방벙이 좀 보라고요, 공지 떨어진 자리가 없나. 이 세상의 모두가 다 그렇게 거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습을 마저 벗기 위해

서, 꼬달리지 않고 마저 벗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큰 고(苦)든지 작은 고(苦)든 고는 고니까, 만약에 깨달으면 고가 아니지만 깨닫지 못하면 고예요, 항상 고예요. “나는 뭐 ‘고’ 될 것도 없어, 그저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놓고 사니까.”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진짜로 깨닫지 못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속상한 일이고 자꾸 꼬달리죠. 그런데 한 소식을 얻은 사람들은 금방 일어났다가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금방 일어났다 금방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거하고 한 소식, 뭐 한 소식이라는 게 두 소식이 있고 세 소식이 있어서 ‘한 소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도 우리가 애 짚고 있고 짚을 짚고 있고 눈을 짚고 있듯 한 몸이 그렇게 자꾸 변해서 가듯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두 소식이 한 소식이고 세 소식이 한 소식이 돼

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주인공에, ‘모든 걸 주인공이 하는 거고 내가 거기 참보았으니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바로 생활이지.’ 이렇게 하고 걸리지 마세요. 질문을 하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그대로 한 거지 뭐, 한 거 없이 한 거지, 말씀하세요.

질문자5(남) (정취 불능)

큰스님 풍으로 드는 방법, 콩나무하고 같이 드는 방법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유익의 법 무의 법을 다양하게, 만법을 응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무겁게 짚어지고 다녀서 무겁소? 세상에 아무 건덕지도 불을 자리가 없고 불일 자리도 없는 것을.

그렇다면은 여여하게 그대로 자기의 그 진실함 속에서 스스로 샘물이 터져야, 생각하는 놈하고 생각 내기 이전 놈하고 같이 상응이 돼야

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인천에 사는 어느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없어서 안됐는데 영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쪽에는 얘기도 없이 내가 그냥 해 놓고 내가 지켜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썽이튿날 그냥 툭툭 털고 취직할 데를 마련해야겠다 그러면서 술집에 온 겁니다. 이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속으로 주인공한테 ‘주인공, 감사합니다.’ 이력하고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아이고, 이젠 병이 나았으니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취직 좀...”

그래서 당신이 취직도 하게 하는 거지, 뭐. 저 사람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둘이 아니니까 내가 이리더면 저 사람 주인공도 둘이 아닌 까닭에 잘 끌고 취직도 시킬 거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님께서 안되는 것도 법이더라니요, 되는 것만 법이나? 안되는 것도 법이라는 걸 모르느냐?’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인공이 날 가르치느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 까 또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들고 나는 거, 안되는 거 되는 거 모든 것을 거기다 감사하게 받고 놓으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스스로서 자기기 벌써 생각을 하면 알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 생각을 해 보니까는 내일 모레 감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는 걸 알기때문에 미미미미 착착 준비해서 감사에 걸리지도 않았는지 뭘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닥칠 거는 벌써 착착... 누가 움켜쥐지 말라나요, 생각하지 말라나요? 생각하는 것도 움켜쥐려는 것도 다 공해서 풀이하는 거고 자기 실상이라고 해도 그 자리를 믿지 않으니깐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장부를 착착 해 놓으니까 뭐 걸릴 것도 없고, 와서 보지기를 풀어서 딱 내놓으니까 그냥 그냥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생활 불교는 그대로 여러분의 진실한 생활에서 움켜쥐려는 법입니다.

옥수수나무도 올해 비람이 많이 불고 폭풍이 일어날 것 같으면 뿌리를 깊숙하게 박아요, 그 해에는, 그렇게 알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닥칠 거를 자기가 튼튼하게 해 놓지 않습니까? 물이 쳐들어올 텐데 내가 어떻게 독을 쌓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역력하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시라고 이런 공부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귀신 마구니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생으로만 고집하지 마세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바로 중생입니다. 이 몸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부처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남한테도 어떻게 물건이 있어야 보이죠? 부처님께서도 저렇게 물건으로 보이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건으로 보이게끔 해 놓고 움켜쥐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저렇게 모습으로 모셔 놔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처고요, 움켜쥐려면 법신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는, 무심으로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 부처예요. 그리고 생각이 났다면은 법신이고요, 일어나서 움켜쥐려다 하면 화신이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행하기에 달려 있고, 마음 씀씀이를 넓게 쓰는 데 달려 있고 좁게 쓰는 데 달려 있으니 좁게 쓰면 업보가 더할 것이고 넓게 들러붙으면 업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 법문은 1986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나고 일과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놓을 데 없는 데다가 놓을 게 없는 것을 봐라 하는데  
진실히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야 됩니다. 그 한 소식마저도 없어서 내세를 게 없어야 열반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단 없는 계단을 걸어야 하고 걸을 게 없는 길을 밟을 발로 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담선법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만 정말 약 팔게 해야 됩니까? 허허허, 물건을 어떤 걸 드릴까요?

질문자4(여) (정취 불능)

큰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 선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한다.’ 고 그러겠지마는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있고, 또 주춧돌이 있어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남이 어떻게 됐든지 모두 여러분이 그저 홀연히 참자기를 개발해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 같아서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지켜본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무심으로써 자기가 진실히 자기

그때는 ‘아이고, 이거 무거운 줄 알았더니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 줄 알았더니 가볍지도 않고 그렇구나.’ 하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스승 아닌 참스승이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무겁다가 가볍다, 이 두 마디가 다니면서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6(남) (정취 불능)

큰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 선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한다.’ 고 그러겠지마는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있고, 또 주춧돌이 있어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남이 어떻게 됐든지 모두 여러분이 그저 홀연히 참자기를 개발해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 같아서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지켜본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무심으로써 자기가 진실히 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흘 만에 인천에 뭘가 하는 데 취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부가 됐다고, 그 사람이 잘됐건만 자기가 술을 한 잔 사 주고 싶더라고요. 고마우니까, 자기 공부 되는 거니까, 자기 공부 대상이 됐거든, 실현 대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실험을 해 보니 나도 좋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보살행이 아닙니까? 자기는 나쁘게 되고 남은 좋게 되고, 또 나는 좋게 되고 남은 나쁘게 되고 이런다면은 그건 보살행이 아니고 중생들이 하는 행동인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보고 연구를 안 하고 행을 해 보지 않는다면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뚫리질 않아요. 이거는 보석이라니 하고 가만히 두면은 그게 줄든지 늘든지 그럴 것 같아요. 잘못되든지 잘되든지 한번 해 보면은 잘못되는 거 잘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안되어도 자기 법, 돼도 자기 법이라.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소리가 나의 실험으로써 잘해 나갔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